

신속한 복구, 신뢰 회복을 위해 KT 전 구성원이 하나가 되었다

노조의 선도적 활동, 위기 극복을 발판 삼아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11월24일 발생한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시설 피해 가복구는 사실상 모두 완료되었다. 시설복구에는 KT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1,100여 명이 그늘음과 분진이 날리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참여해서 유례없는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은 사고발생 즉시 김해관 위원장이 사고현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대책반을 꾸려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앙 상집간부와 강북지방본부 상집 및 지부장들이 현장에 다수 상주하면서 지원활동을 펼쳤다. 11월28일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국가적으로 통신설비의 중요성을 알게 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복구 활동을 격려했다.

화재사고 비상대책반은 복구 작업을 하는 수백 여 명의 직원들을 위해 식사 배식, 간식 등 식음료 지원, 핫팩 등 보온 물품 지원을 했으며, 지원물품 마련을 위해 전국지방본부위원장단,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 KT노조 전직위원장단 등도 힘을 보탰다. 또한 전국에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물품 후원도 답지했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신속한 복구와 신뢰회복”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나선 저력을 보여줬다.

시설 가복구가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12월20일 비상대책반 활동을 공식 종료하고, 향후에는 강북지방본부 주관으로 현장활동을 이어간다. 이와 함께 김해관 위원장은 20일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복구지원 활동에 나선 강북지방본부 소속 지부장들을 격려’하는 행사도 개최했다. 신속한 복구와 함께 국민과 고객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아현동 런치타임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본사 조합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신속한 통신시설 복구와 함께 이어진 것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었다.

통신장애 발생지역 유무선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 보상을 포함하여 동케이블기반 유선과 인터넷 가입고객의 경우 최대 3~6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던 중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다가가 사과와 위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시행되었다.

그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아현동 런치타임’ 캠페인이다. 이는 KT 광화문 2개 사옥 및 혜화지사 구내식당 운영을 12월 28일까지 3주 동안 중단하고 약 4,800여 명이 점심 및 회식을 아현동 일대 식당에서 하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위로하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열정과 동참, 상인들의 마음을 녹이다

이 캠페인은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노사가 함께 협의를 거쳐 진행했으며 광화문 사옥 일대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미담이 언론에 소개됐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직원들을 동원하여 여론을 무마해 보려는 꼼수 이벤트’라고 폄하해서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캠페인에 동참한 직원들의 순수한 열정에 피해지역 식당 자영업자들도 고마움을 표했다. **KT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사가 함께 전개하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본사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아현국사 화재사고로 인한 복구와 보상은 계속될 예정이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